

발표 임박 ‘광주공공의료원’ 골칫거리 되나

정부 타당성 재조사 내달 도출
경제성↓…정책적 고려 기대
심의 문턱 넘어도 난제 산적
국비 쥐꼬리…수천억원 부담

정부의 최종 심의결과 발표가 임박한 ‘공공의료원’을 둔 광주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차 관문 격인 타당성 재조사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다 어렵사리 관문을 넘어서더라도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에 발목 잡힐 공산이 크고, 건립부지 활성화 방안 등 극복해야 할 난제가 수도룩하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민 건강권 확보와 의료안전망 구축, 의료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공공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2026년까지 서구 상무지구 도심융합특구 내 2만5,000㎡에 350병상 내외로 계획됐다.

민선 8기 장기정 시장의 핵심 공약이기도 한 공공의료원 건립 사업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타당성 재조사 심사가 진행 중이다. 재조사 결과는 빠르면 4월께 나올 예정이다. 광주시는 경제성 부족, 쪽지예산 분류 등으로 재조사 대상으로 분류된 공공의료원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그동안 보완자료를 여러 차례 제출했지만, 여전히 심의 기준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전국 17개 시도 중 광주와 울산에만 지방의료원이 없는 점과 지역사회 설립 열망이 큰 점 등을 들어 정책적 배려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광주시의회가 실시한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시민 10명 중 9명 이상은 공공의료원이 설립되면 이용할 것이라며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지역 정치권도 정책 토론회 등을 열고 “의료체계 불균형 해소는 꼭 해결해야 한다”며 설립 당위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공공의료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정책적 배려 등을 감안, 심의 문턱을 넘어서더라도 설립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천억원에 달하는 재원확보는 우선 지적된다. 광주시는 의료원 설립에 2,195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는데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예산 지원마저 의료원 건립 전체 예산의 5분의 1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돼 고민을 더욱 깊게 하고 있다.

실제 착공을 앞두고 있는 대전의료원의 경우 총사업비 확정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와 기획재정부는 국비 지원 규모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인데 정부의 의료 정책 방향이 지방의료원보다는 민간병원을 선호하고 있고, 향후 운영 적자 부담 등 영향으로 400~500억 규모의 국비만 투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200여억원이 필요한 광주의료원 설립 비용과 개원 초기 운영비(인건비·의료기기·관리) 등을 고려해 볼 때 대전 수준의 국비 지원을 제외하면 2,000여억원에 달하는 시 자체 예산을 확보해야만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여기에 건립 예정 부지인 상무지구 일대 도심융합특구의 세부 지원 방안이 담긴 특별법 제정이 수년째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점도 사업 추진의 변수다. 도심융합특구는 ‘판교제2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지방 대도시 도심에 조성해 인재 유출을 막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정부는 광주를 비롯해 대구, 대전, 부산, 울산 등 5개 지역을 대상으로 도심융합특구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특구 조성의 근거와 지원 방안 등이 담긴 특별법이 2년 가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도심융합특구 지정 및 조성 절차, 지원 사항, 운영방식 등의 내용이 담긴 3건의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류미수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광주의료원에 대한 국비 지원도 대전의료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타당성 조사 재추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건의, 공공의료 체계 구축 등 향후 사업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INSIDE NEWS

- 광주 아파트 8만세대 화재 무방비 ▶7면
- 초대석/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 ▶8면
- 기획/광양매화축제 ▶9면



긴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린 12일 오후 매화가 만개한 전남대에서 형형색색의 우산을 쓴 학생들이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20mm 단비…오늘 기온 ‘뚝’ 꽃샘추위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광주·전남지역에 단비가 내린 가운데 한파와 함께 꽃샘추위가 찾아올 전망이다.

12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오후 3시 기준 신안 안와도 22.5mm를 최고로 장성 상무대 21mm, 영광 18.1mm, 화순 북 17.5mm, 광주 남구·함평 월야·

장흥 관산 16mm, 구례 성삼재 15mm 등 강우량을 기록했다.

13일부터는 기온이 급감하면서 이날 오후 9시를 기해 광주와 담양, 곡성, 구례, 여수, 광양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됐다.

북서쪽에서 찬공기가 남하하면서 13일 아침 기온은 10도 이상 큰 폭으로 떨어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8도~12도 분포를 보이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4~7도 가량 더 낮겠다.

한파주의보는 13일 해제될 전망이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내린 비가 얼어 도로가 매우 미끄럽겠다”며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매우 크겠으니,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혜린 기자

“유배지도 아니고” 전남 징계교사 쏠림 심각

해남·강진·장흥 등 집중

신규·기간제도 농촌 편중

전남도교육청의 신규 교사와 징계처분 교사에 대한 발령·전보 조치가 농어촌 등 특정 지역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간 교원 역량 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2일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이도교육청으로부터제출받은

‘2021~2023년 징계처분을 받은 교사 전보 현황’에 따르면 공립 초등학교의 경우 이 기간 모두 22명의 교사가 징계 관련 전보 조치됐다.

그러나 이들 교사의 전보지역은 해남·강진·장흥 등 3곳의 교육지원청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남지역에는 올 들어 발생한 3명의 징계관련 교사 전원이 전보된 것을 비롯해 무려 11명(50%)이 집중됐다.

중등학교에서도 징계처분 교사의 특정지역 배치 편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올 들어 징계처분을 받아 전보된 28명의 중등 교사 중 해남과

진도 교육청이 각각 4명으로 가장 많고 강진과 고흥이 3명씩으로 뒤를 이었다. 이른바 ‘경합지역’인 나주·화순·담양·장성교육지원청과 광주시와 인접한 곡성교육지원청에는 3년간 단 1명도 없었다.

같은 기간 발령된 도교육청 산하 중등학교의 정원대비 신규교사 비율도 징계관련 교사 전보 현황과 궤를 같이했다.

도교육청이 올 들어 신규 발령한 285명의 중등교사 가운데 신안의 정원대비 신규교사 비율이 21.2%(40명)로 가장 높았고, 완도 18.2%(47명), 진도 17.6%(15명), 장흥 11.9%(21명), 강진 10.5%(22명), 해남 9.8%(26명) 등 순으로 집계됐다.

➡ 2면으로 이어짐 /정근산 기자

www.518run.com

5·18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

23회

5·18 마라톤대회

민주의 성지
광주에서 다함께 땀시다!

일시 **2023. 5. 20 (토)** 집결 08:00
출발 08:30

장소 **광주 승촌공원 운동장 (승촌보 내)**

종목및참가비 ▶ 5.18km 10,000원
10km, 하프코스 30,000원

접수기간 ▶ ~ 2023년 4월 21일(금) ★현재접수중★

접수방법 ▶ 전화, 팩스, 518run.com, 0518run@hanmail.net

문의 ▶ TEL (062) 720-1099, FAX (062) 720-1020

카카오톡 ID : jndnnews

주최 ▶ 518기념재단 M 전남매일